

## 三焦 形象圖의 비교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趙學俊 \*

### Comparing Atlases of Tripple Energizer(三焦)

Jo Hak-jun \*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An atlas of tripple energizer affords to make us understand what the ancients thought it shaped.

**Methods** : All pictures of it were picked out from traditional east Asian medical books where the atlas of every organ had been inserted. To be sure what it shaped, they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shape.

**Results** : *Shang Han Lun Tiao Bian*(傷寒論條辨) has been one of the 4 books that shows it in the entire atlas drawing all organs in traditional Chinese, Korean and Japanese medical books. 14 books have a picture of it, while 18 books have an atlas of each organ except it. Since its multiple functions could not be expressed on a canvas at once, it had 6 different shapes, including the picture in *Shang Han Lun Tiao Bian*.

**Conclusions** : Most of them were more representational or conceptualized than realistic, because ancient people had drawn it to inform the various functions, rather to show the actual feature. As anatomy went out into the east world, the more actually it was drawn, the further it was away from the own purpose.

**Key Words** : atlas, shape, tripple energizer(三焦), organ

### I. 序 論

『東醫寶鑑』 「身形臟腑圖」를 포함하여 臟腑全圖,

\* Corresponding Author : Jo Hak-j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65, Semyeong-ro, Jecheon-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82-43-649-1347. Fax: +82-43-649-1702.  
E-mail: palm01@hanmail.net  
Received(20 July 2015), Revised(14 August 2015), Accepted(17 August 2015).

臟腑分圖는 현대인의 눈에 그 묘사가 사실적이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게 보일 뿐만 아니라, 현대 해부학과 비교하여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과학적이라는 평가까지 듣는다.

한의학의 그림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통의 동양 그림도 이와 비슷한 혐의를 흔히 받고 있다. 동양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은 “생태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그림으로 그려진 점, 실제 있지 않았던 일들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가상적으로

그러진 점, 고금을 통하여 동일한 형식의 그림이 계속 그려졌다는 점<sup>1)</sup>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동양 그림을 전공하는 미술계는 그 의구심의 원인을, 서구적으로 길들여진 사고방식, 동양 그림의 본질적 특징에서 찾고 있으며, ‘동양 그림은 읽는 그림<sup>2)</sup>이라는 해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소위 書畫同源論, 書畫一致論<sup>3)</sup>이라 불린다.

三焦의 형체에 대한 언급은 그 淵源이 위로 『內經』, 『難經』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로 여러 歷代醫家들이 혹은 무형을, 혹은 유형을 주장함으로써 三焦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三焦 形象마저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三焦의 형체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문자 해석에 국한하였다. 가령 三焦學說을 無形說, 包羅說, 全身散居說, 脂膜說, 體用說(無形說과 命門說의 결합)로 분류<sup>4)</sup>하고, 『內經』의 三焦有形의 根據와 실체를 고찰<sup>5)</sup>하고, 三焦有形說의 발전단계를 맹아기, 발전기, 성숙기, 심화기로 세분<sup>6)</sup>하고, 有形說에 근거한 病機를 고찰<sup>7)</sup>하고, 張介賓의 三焦有形說을 분석<sup>8)</sup>하였다.

한편 臟腑에 대한 이해를 문자에서 벗어나 그림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가령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sup>9)</sup>, 『華陀玄門內照圖』<sup>10)11)</sup>, 『三才圖會』의 臟腑圖<sup>12)</sup>, 『東醫寶鑑』의 「臟

腑身形圖」<sup>13)14)15)</sup>를 연구하고, 臟腑側面圖에서 정액의 이동경로를 고찰<sup>16)</sup>한 바가 있고, 중국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明堂圖”源流簡考<sup>17)</sup> 五臟圖考<sup>18)</sup> 등이 있다.

그러나 臟腑分圖, 특히 三焦圖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臟腑全圖에 대한 기존 연구는 동양 그림의 본질이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일본 에도(江戶) 시대 醫家 야스사다는 『非藏志』에서 서양의학에 자극을 받아 당시에 시도된 해부에 대해 비판하여 “藏이 藏일 수 있는 것은 형상이 아니며, 神氣를 저장하기 때문이다. 神이 떠나고 氣가 흩어지면 藏은 빈 그릇이 된다.”<sup>19)</sup>는 특징을 피력하였는데, 이 특징은 전통 동양 그림에도 ‘인물 속에 내재된 정신을 그려야 한다.’는 傳神寫照<sup>20)</sup>의 의미로 반영되어 있다.

臟腑圖가 비록 실체를 중시하는 의학 분야의 그림이라 할지라도 전통 동양 그림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전통 동양 그림의 특징을 고려해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三焦의 形象에 대한 문자 해석을 보완하기 위해, 三焦圖를 그리게 된 근거를 파악하고, 三焦의 서로 다른 形象을 비교하여 그 특징과 의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1) 조용진, 동양화 읽는 법. 서울. 집문당. 2014. p.3.  
2) 조용진, 동양화 읽는 법. 서울. 집문당. 2014. p.19.  
3) 이성도, 김혜숙, 김서진, 손명선. 전통 미술 문화 교육. 서울. 미진사. 2005. p.62.  
4) 박석기. 三焦의 臟腑系統 研究. 석사학위논문. 東國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2001.  
5) 尹暢烈. 『內經』에 나타난 三焦有形의 根據 및 三焦의 實體.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5(4). 2012.  
6) 尹暢烈. 三焦有形說에 關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4(6). 2011.  
7) 尹暢烈. 三焦有形으로 살펴본 三焦의 機能, 病證 및 臟腑配合.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6(2). 2013.  
8) 朴赫圭. 張景岳의 三焦包絡命門辨에 關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1(1). 1998.  
9) 김대형, 안상우.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의학적 고찰. 韓國醫史學會誌. 18(2). 2005.  
10) 심현아, 금경수, 정현영, 최현배, 엄동명. 『華陀玄門內照圖』에 對한 研究. 大韓韓醫情報學會誌. 18(1). 2012.  
11) 한봉계, 오준호, 서지연, 김태은, 홍세영, 윤성익, 차용석, 김남일. 『華陀玄門內照圖』의 형성과 본문편제. 대한경락경

혈학회지. 23(4). 2006.  
12) 이명철, 박경남, 맹용재. 明代 王圻의 《三才圖會》 臟腑圖에 대한 考察. 韓國醫史學會誌. 20(2). 2007.  
13) 成旼奎, 丁彰炫. 身形藏腑圖에 關한 比較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1(3). 2008.  
14) 김태우, 윤중화. 東醫寶鑑의 身形臟腑圖와 精氣神의 關聯性에 關한 研究. 大韓韓醫氣功學會誌. 10(1). 2007.  
15) 鄭遇悅, 李鎭弘, 田炳薰. 東醫寶鑑의 身形臟腑圖와 許浚의 醫學思想. 동역병리학회지. 10(2). 1996.  
16) 신승훈, 배성철, 김기양. 동아시아 고문헌에 나타난 정액의 생성 및 이동 경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5(2). 2012.  
17) 潘萍, 郭义, 王东强. “明堂图”源流简考. 针灸临床杂志. 24(5). 2008.  
18) 靳士英. 五臟圖考. 中华医史杂志. 24(2). 1994.  
19) 김성수. 에도(江戶) 시대 해부학의 발전. 21(1). 의사학. 2012. p.125. 재인용.  
20) 이성도, 김혜숙, 김서진, 손명선. 전통 미술 문화 교육. 서울. 미진사. 2005. p.69.

## II. 本 論

臟腑圖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른 중국, 한국, 일본의 전통서적(唐宗海의 『中西匯通醫經精義』의 발행까지, 특히 의서를 위주로 하였음. RISS, CNKI, OASIS의 검색 결과임.)을 검토하여 臟腑全圖에서 三焦를 표시한 그림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臟腑分圖가 있는 서적을 검색하여 그중에 三焦의 그림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중국, 한국, 일본의 전통서적 중에서 臟腑全圖에서 三焦를 표시한 그림은 『傷寒論條辨』 「陽病在表自外而內之圖」, 『鍼灸拔萃大成』 「藏府內景之圖」, 『傷寒醫驗』 「陽象圖」, 『陳氏秘囊錄』 「側人臟腑之圖」에 불과하고<sup>21)</sup>, 다른 서적의 臟腑全圖에서는 三焦를 표시하지 않았다.

臟腑分圖가 실려 있는 서적은 『針灸聚英』, 『古今醫統大全』, 『鍼灸原樞』,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鍼灸大成』, 『三才圖會』, 『鍼方六集』, 『類經圖翼』, 『醫宗必讀』, 『藏府指掌圖書』, 『醫學原始』, 『和漢三才圖會』, 『醫部全錄』, 『醫宗金鑑』, 『瘍醫大全』, 『解體發蒙』, 『醫林改錯』, 『中西匯通醫經精義』 등 18종<sup>22)</sup>이 있다. 그중에서 三焦圖가 없는 서적은 『針灸聚英』, 『古今醫統大全』, 『鍼灸大成』, 『鍼方六集』 등 4종이다.

이외에 비록 臟腑全圖에 三焦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림 내에 三焦에 대한 附記가 있는 서적이 적지 않은데, 『醫學綱目』 「臟腑明堂圖」 계열 또는 『醫學入門』 「臟腑圖」 계열<sup>23)</sup>이 그에 해당된다.

讀畫의 방법, 즉 ‘그림이 곧 설명’인 동시에 그림과 함께 실린 ‘附記가 곧 그림’이고 ‘그림이 곧 附記’라는 해석방법(소위 書畫一致論)을 三焦圖의 그림과 그 附記에 적용하면 三焦에 대한 醫家의 견해를

계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三焦圖의 그림과 附記, 著述 등을 함께 다루기로 한다.

三焦 관련 附記는 醫書 중 『醫學綱目』 「臟腑明堂圖」에서 시작하므로 이 책이 그 附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醫學綱目』만 살펴보면 같은 계열의 나머지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먼저 『醫學綱目』 「臟腑明堂圖」와 그 附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傷寒論條辨』 「陽病在表自外而內之圖」, 『鍼灸拔萃大成』 「藏府內景之圖」, 『傷寒醫驗』 「陽象圖」, 『陳氏秘囊錄』 「側人臟腑之圖」와 다른 서적의 三焦圖를 살펴봄으로써 옛날 醫家들은 三焦가 어떻게 생겼다고 인식하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1. 『醫學綱目』(1565) 「臟腑明堂圖」

樓英은 『醫學綱目』 第八卷(殘缺本)에 「臟腑明堂圖」를 수록하였는데<sup>24)</sup> 국내에 수입된 여러 판본에는 그 그림이 실려 있지 않다.<sup>25)26)27)</sup>

Fig. 1과 같이 『醫學綱目』 「臟腑明堂圖」 아래쪽에 “心精을 흔들면 命門을 움직여 三焦의 精氣를 吸撮하니, 이곳(精道)로부터 배설된다.”<sup>28)</sup>라는 설명을 附記하였는데, 그 附記의 유래는 『龍川略志』에서 宋代 醫家 單驥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21) 현재 RISS, CNKI, OASIS을 통한 검색으로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 정보를 온전히 알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일본서적에서 三焦가 표시된 臟腑全體圖가 추가로 발견될 수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22) 일본 서적 중에서 『和漢三才圖會』(1712)와 『解體發蒙』(1816)에도 臟腑分圖가 실려 있으며, 특히 『和漢三才圖會』에는 「三焦圖」가, 『解體發蒙』에는 「上下兩膈連屬圖」, 「三膈後面圖」가 실려 있다.

23) 신승훈, 배성철, 김기왕. 동아시아 고문헌에 나타난 정액의 생성 및 이동 경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5(2). 2012. p.69. 이 논문의 측면장부도 계통 참조.

24) 신승훈, 배성철, 김기왕. 동아시아 고문헌에 나타난 정액의 생성 및 이동 경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5(2). 2012. p.70. 신승훈 등은 「臟腑明堂圖」에 대해 “樓英『醫學綱目』(1565初刊) 경희대학교 출판국 『동양의학대사전』 수록의 연대 미상 도판에서 옮김”이라고 표시하였으나, 경희대학교 출판국에서 간행한 『동양의학대사전』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고, 黃龍祥의 『中國針灸史圖鑑』에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함.

25) 樓英. 醫學綱目(上). 서울. 일지사. 1984. pp.229-264. 第八卷에 穴法(上), 穴法(下)의 글만 있지 그림은 실려 있지 않다.

26) 樓英 著. 陳柱杓 註釋. (註釋)醫學綱目. 서울. 범인문화사. 2010. pp.175-196. 第八卷에 穴法(上), 穴法(下)의 글만 있지 그림은 실려 있지 않다.

27) 樓英. 醫學綱目(中國醫學大成續集 v.22-1).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第八卷에 글만 있지 그림은 실려 있지 않다.

28) “搖心精(旌), 則動命門, 吸撮三焦精氣, 從此泄矣.” 『醫學綱目』 「臟腑明堂圖」에는 ‘心旌’으로 되어 있으나, 『龍川志』를 비롯하여 이 그림을 인용한 醫書 대부분, 가령 『醫學入門』에서 ‘心精’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心精’으로 고쳤다.



Fig. 1. Zang Fu Ming Tang Tu(from Yi Xue Gang Mu)

單驥은 “三焦가 人體에 분포되어 있어서 上·中·下의 서로 다른 곳이 있다. 사람 마음이 맑고 고요하여 욕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精이 三焦로 흩어져서 온몸을 영화롭게 하다가, 그 욕심이 한번 일어날 때에 이르러 心火가熾盛하여 三焦의 精氣를 吸撮하여 命門의 腑로 들어가서 옮겨져 밖으로 배출하므로 이 腑를 焦라고 부를 뿐이다.”<sup>29)</sup>라고 하였다.

29) 陳夢雷. (圖書集成)醫部全錄(v.5).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45. “三焦分布人體, 有上中下之異方. 人心湛寂, 欲念不起, 則精散在三焦, 榮華百體, 及其欲念一起, 心火熾然, 吸撮三焦精氣, 入命門之腑, 輸瀉而去, 故號此腑爲焦耳.”

이 내용은 『醫學綱目』, 『醫學入門』 등에서 「臟腑圖」의 附記 형태로 요약, 수록되어 있다.

이 언급으로부터 평소에는 人體의 精氣가 無形으로 三焦에 흩어져 있다가, 心臟이 명령하면 비로소 그 精氣가 命門을 거쳐서 有形으로 바뀌어 體外로 배출된다고 인식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醫學綱目』 「臟腑明堂圖」의 三焦 관련 附記의 근거가 三焦有形을 주장한 單驥의 학설이라는 사실이다.

單驥은 “古說에 左腎의 腑는 膀胱이고, 右腎인 命門의 腑는 三焦이니, 丈夫는 그것으로 藏精하고 女子는 그것으로 繫胞한다고 하니, 이것에 근거하면 三焦는 마땅히 膀胱과 같이 볼 수 있는 形質이 있다.”<sup>30)</sup>라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 『醫學綱目』의 編制에서 傷寒病, 婦人病, 小兒病을 제외하고 모든 雜病에 대해 肝膽部, 心小腸部, 脾胃部, 肺大腸部, 腎膀胱部로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 三焦部나 命門部라는 명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樓英은 三焦의 形體에 대해 『素問』, 『靈樞』, 王好古, 王水, 李東垣 등의 설명을 인용하였는데, 王好古의 “三焦는 臟은 있으나 腑는 없으니, 안에 있어서 유행하는 것은 血이며, 밖에 있어서 固攝護衛하는 것은 氣이다.”<sup>31)</sup>와 王水의 “『經』에 또한 가로되 ‘臟이 있으나 腑가 없음은 無形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臟이 있고 腑가 있음은 有形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 東垣이 이르되 ‘三焦는 이름은 있으나 형체는 없으니 모든 기운을 主持하여 三才의 쓰임을 본뒀다. 그러므로 呼吸이 升降하거나 水穀이 往來하는 것이다. 이 三焦로 말미암아 通達하게 된다.”<sup>32)</sup>라는 말을 인용하여, 그 자신은 三焦가 형체가 없다는 관점을 지지하고 있음을

30) 陳夢雷. (圖書集成)醫部全錄(v.5).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45. “古說左腎, 其腑膀胱, 右腎命門, 其腑三焦, 丈夫以藏精, 女子以繫胞, 據此則三焦當如膀胱有形質可見.”

31) 樓英. 醫學綱目(上). 서울. 일지사. 발행연도 미상. p.15. “三焦有臟而無腑, 在內則流行, 是血也, 在外則固護, 是氣也.”

32) 樓英. 醫學綱目(上). 서울. 일지사. 발행연도 미상. p.15. “經又曰: 有臟而無腑, 從無形而言之也. 有臟而有腑, 從有形而言之也. … 東垣云: 三焦有名無形, 主持諸氣, 以象三才之用, 故呼吸升降, 水穀往來, 皆待此以通達.”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위와 같이 『醫學綱目』의 編制와 그의 引用, 「臟腑明堂圖」로부터 樓英은 三焦無形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樓英은 三焦無形을 주장한 데 반해 『醫學綱目』 「臟腑明堂圖」의 附記, 즉 “搖心精, 則動命門, 吸撮三焦精氣, 從此泄矣.”은 三焦有形을 주장하는 單驥의 언급에서 근거하였기에, 三焦 形質에 대한 전체가 서로 모순된다. 즉, 單驥의 말은 三焦가 본래 有形임을 전제로 한 학설임에도 불구하고, 無形을 주장하는 樓英, 李梴 등 여러 醫家들이 三焦를 설명할 때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三焦無形을 주장하는 醫家들이 그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單驥의 학설은 陳無擇의 『三因極一病證方論』에 실려 그 당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陳無擇이 有形을 주장했다는 것도 無形을 주장하는 醫家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三焦의 形質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無形을 주장하는 醫家들이 單驥의 학설을 일부 받아들인 까닭을 그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單驥의 學說로 미루어 볼 때, 평소에 三焦에 精이 無形의 상태로 散布되어 있다가, 배출할 때에 비로소 命門에서 有形의 精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無形의 精은 三焦의 유형, 무형 여부와는 상관없이 三焦 내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점은, 『醫學綱目』 「臟腑明堂圖」 附記의 또 다른 특징은 命門을 통해 精이 배설되는 기전과 관련되었을 뿐, 三焦 고유의 기능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醫家들이 三焦를 설명할 때 『內經』과 『難經』의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 “主內而不出(上焦), … 主出而不內(下焦)”의 원문을 인용하지 않음이 없으나, 『醫學綱目』 「臟腑明堂圖」에서는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醫學綱目』 「臟腑明堂圖」가 다른 臟腑全圖와 마찬가지로 三焦가 인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뚜렷하게 표현하지 않았던 이유는, 樓英이 三焦가 무형이므로 표시할 방법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2. 臟腑分圖 중 「三焦圖」와 臟腑全圖 속의 三焦의 형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臟腑分圖 중 三焦圖가 있는 서적 14종과 臟腑全圖 중 삼초가 표시된 서적 4종에 대해, 저서의 시대 순서로 三焦 形象의 특징, 의의, 근거 등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1) 『鍼灸原樞』(1573) 「三焦形象之圖」

吳嘉言의 『鍼灸原樞』에 五臟五腑와 胞絡, 三焦에 대한 臟腑分圖가 실려 있다.<sup>3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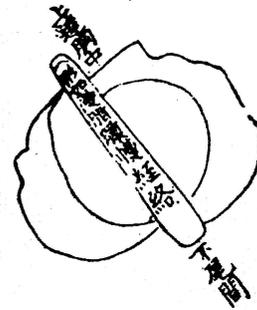


Fig. 2. Atlas of Tripple Energizer (from *Zhen Jiu Yuan Shu*)

Fig. 2와 같이 「三焦形象之圖」에서 불규칙한 외곽을 지닌 원통의 단면을 세로로 약간 비스듬히 관통하는 기다란 막대기 모양을 그려놓고 위쪽에는 “上連胸中”, 아래쪽에는 “下尾閭”라고 쓰고, 그 한 가닥의 굵은 통로 속에 “形如漫脂, 膜幔經絡”이라고 附記하였다.

이 그림에 대해 黃龍祥은 三焦의 형상을 처음으로 묘사한 것으로 평가<sup>34)</sup>하고 있다.

「三焦形象之圖」와 그 附記로부터 吳嘉言이 인식한 三焦의 형상을 분석해 보자면, 비록 비스듬하게 그려져 있지만 胸中으로부터 尾閭까지 한 가닥의 굵은 통로로서 마치 질펀한 기름 같기도 하고 천막 같

33)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陶. 青陶出版社. 2003. p.25.

34)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陶. 青陶出版社. 2003. p.25.

기도 한 經絡이 바로 三焦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三焦가 몸속에 감추어진 형체 있는 經絡으로서 胸中부터 尾閭까지 기운이 소통되는 도로라고 여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三焦는 비록 몸속에 있지만 그 형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中藏經』의 “三焦가 인체의 元氣로서 內外, 左右, 上下로 통한다.”<sup>35)</sup>는 내용과 비교하면, 「三焦形象之圖」의 그림은 三焦를 통해 元氣가 胸中과 尾閭사이의 上下로 통함을 묘사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 그림에서 불규칙한 외곽을 지닌 원통의 단면은, 아마도 인체의 元氣가 온몸에 충만함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매우 단순하다는 점으로 볼 때, 해부 또는 외형적 관찰로부터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림의 묘사를 현대 해부학적 구조와 서로 비교해 볼 때, 그 어느 것보다도 닮지 않아서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附記에서 ‘질편한 기름 같기도 하고 천막 같기도 하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묘사로 볼 때, 해부를 거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이 그림은 無形의 經絡 또는 元氣를 형상화한 構想畫(representational picture)<sup>36)</sup> 중 상상화(imaginary picture)인 동시에, 불규칙한 외곽으로 인체를 抽象化한 그림(abstract painting)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은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 “主內而不出(上焦), … 主出而不內(下焦)”와 같은 三焦 고유의 기능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1580) 「手少陽三焦經圖」

馬蒔의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에 臟腑全圖는 실려 있지 않고, 臟腑分圖와 經脈圖가 실려 있다. 「手少陽三焦經圖」<sup>37)</sup>에서 三焦의 形象과 附記를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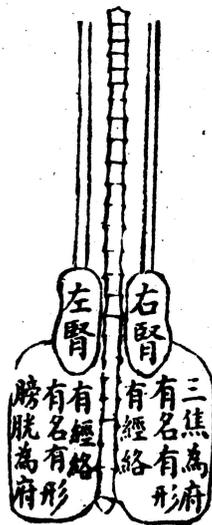


Fig. 3. Atlas of Tripiple  
(from *Ling Su Zu Zheng Fa Wei*)

Fig. 3에서 보듯이 「手少陽三焦經圖」에서 左腎, 右腎을 표시하고, 兩腎 위쪽에 각각 한 줄기의 맥락을 나타내고, 兩腎의 아래쪽에 尾閭까지 좌우로 각각 하나씩 상하로 길쭉한 직사각형에 가까운 타원을 그리고, 左腎 아래 타원 안에 “膀胱為府, 有名有形, 有經絡.”이라고 附記하고, 右腎 아래 타원 안에 “三焦為府, 有名有形, 有經絡.”이라고 附記하였다. 이 그림 속의 附記의 내용으로 볼 때, 馬蒔는 三焦有形을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다.

또한 「手少陽三焦經圖」의 설명에 “후세에 이름은 있으나 형상이 없다는 것은 그르다. 그 재앙이 秦越人에게서 시작하여 王叔和에서 완성되었다. … 手厥陰心包絡의 經脈과 表裏가 된다.”<sup>38)</sup>라고 하여 그는 三焦有形을 주장하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Fig 3에서 비록 무엇이 三焦의 형상인지 표시되

35) 華陀. 華陀中藏經. 臺北. 自由出版社. 1978. p.27. “三焦者, 人之三元氣也. 總領五臟六腑, 營衛經絡, 內外左右, 上下之氣, 三焦通 則內外左右上下皆通. 其於周身灌體, 和內調外, 營左養右, 導上宣下, 莫大於此也.”

36) 실재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사물을 그대로 나타낸 그림. <네이버 국어사전>

37)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馬元臺張隱庵合註).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발행연도미상. p.108.

38)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馬元臺張隱庵合註).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발행연도미상. p.108. “此經本有名有形. … 後世以爲有名無狀者非. 其禍始於秦越人, 而成於王叔和也. … 如手厥陰心包絡經爲表裏.”

어 있지 않았지만, 兩腎 위쪽에 각각 한 줄기의 맥락을 그리고 나서 兩腎의 아래쪽에 尾閭까지 좌우로 각각 타원형으로 표시한 것 중 오른쪽이 三焦의 형상에 해당하며, 그 근거는 『龍川略志』에 실린 徐遁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三焦의 형상에 대해 “右腎 아래에 손바닥크기 만한 脂膜이 있는데 방광과 바로 마주 대하고 있으며, 두 개의 흰 脈이 그 가운데에서 나와 척추를 끼고 올라가 腦와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導引家들이 말하는 바의 夾脊雙關인데 脂膜이 손바닥크기만한 것이 三焦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sup>39)</sup>라고 하였다.

徐遁의 말과 馬蒔가 묘사한 三焦의 형상을 비교해 보면 서로 비슷하다. 그러므로 馬蒔 본인이 三焦의 形象을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라, 徐遁이 외형을 관찰한 것에 근거하여 馬蒔가 三焦脂膜說을 지지하여 그림으로 묘사한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構想畫 중 경험화(experiential picture) 또는 상상화로서, 馬蒔의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을 그린 것이다.

이런 묘사는 樓英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三焦의 精이 命門을 통해 배설되는 기전을 나타낼 수 있지만, “上焦如霧, 中焦如瀉, 下焦如瀆”, “主內而不出(上焦), … 主出而不內(下焦)”와 같은 三焦 고유 의 기능과 역할은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였다.

(3) 『傷寒論條辨』(1592) 「陽病在表自外而內之圖」

方有執은 『傷寒論條辨』에서 「陽病在表自外而內之圖(이하 在表圖)」, 「陰病在裏自下而上之圖(이하 在裏圖)」를 실었는데, 그중 「在表圖」<sup>40)</sup>에서 三焦를 표시하였다.

39) 陳夢雷. (圖書集成)醫部全錄(v.5).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45. “見右腎下有脂膜如手大者, 正與膀胱相對, 有二白脈, 自其中出, 夾脊而上貫腦, 意此即導引家所謂夾脊雙關者, 而不悟脂膜如手大者之爲三焦也.”

40)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典(vol.8).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9. p.475. 이 그림은 「在裏圖」와 함께 다른 臟腑圖보다 도식적인 성격이 한층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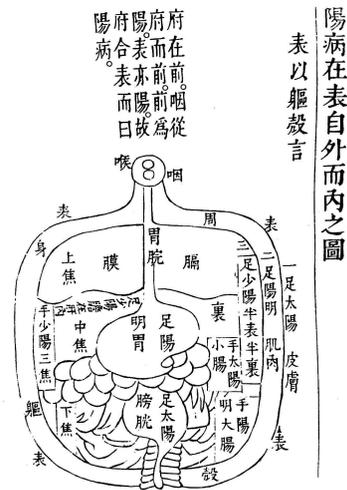


Fig. 4. Atlas of the bodily surface (from *Stang Han Lun Xiao Ban*)

Fig. 4에서 보듯이, 「在表圖」는 臟腑의 형태를 정확히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臟腑의 表裏를 구분하여 傷寒病의 傳變 상황을 나타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즉 「在表圖」는 表에 해당하여 흰 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在裏圖」는 裏에 해당하여 검은 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전신의 軀殼과 咽部부터 六腑의 앞쪽을 모두 表에, 喉部로부터 五臟의 뒤쪽을 모두 裏에 배속하였다.

또한 傷寒 傳變의 순서를 숫자로 표시하였다. 즉, 「在表圖」에서 足太陽 皮膚를 ‘一’로, 足陽明 肌肉을 ‘二’로, 足少陽 半表半裏를 ‘三’으로, 「在裏圖」에서 足太陰 脾를 ‘四’로, 足少陰 腎을 ‘五’로, 足厥陰 肝을 ‘六’으로 표기하였다.

이 그림에서 三焦를 묘사할 때, 격막 이상을 上焦, 격막 이하 小腸 이상(胃에 해당)을 中焦, 小腸 大腸 膀胱을 下焦라고 각각 표기하였으며, 별도로 足陽明 肌肉의 안쪽, 中焦의 높이에 길쭉한 막대모양을 그리고 나서 그 안에 手少陽 三焦라고 표기하였다.

이처럼 方有執이 인체의 단면을 上·中·下 부위로 나누어 上·中·下 三焦를 표시하고 동시에 길쭉한 막대모양으로 묘사하였지만, 다른 臟腑를 묘사한 방식

으로 미루어 볼 때, 三焦의 실제 형상을 묘사한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 따라서 그 그림이 도식의 성격이 강하다는 黃龍祥의 견해가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方有執은 三焦를 실제로 관찰하여 그린 것이 아니라, 臟腑의 表裏를 구분함으로써 傷寒病의 傳變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그 도식(schema)의 일부로 표현하였다. 이 그림의 목적 자체가 三焦를 묘사하기 위함이 아니므로,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 “主內而不出(上焦), … 主出而不內(下焦)”와 같은 三焦 고유의 기능이나 三焦의 精이 命門을 통해 배설되는 기전을 그림으로 묘사하지도 않았고, 附記에도 적지 않았다.

(4) 『三才圖會』(1607) 「三焦圖」

明代 王圻의 『三才圖會』 「身體」에 臟腑全圖와 臟腑分圖가 모두 실려 있으며, 그 중 「三焦圖」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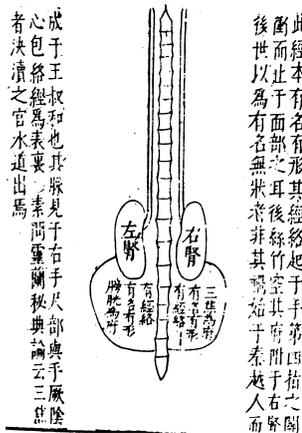


Fig. 5. Atlas of Tripple Energizer(from *San Cai Tu Hui*)

이 「三焦圖」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手少陽三焦經圖」를 模寫하되 그림이 약간 변화되고, 그 附記와 설명이 함께 인용된 것으로 臨畫<sup>41)</sup>에 해당한다. 후에 『醫部全錄』에서 다시 『三才圖會』의 설명은 제외하고 그림과 附記가 인용되었다.

41) 명화(名畫)들을 모아 놓은 화집(畫集) 따위를 보고 그대로 본떠서 그림을 그리는 일. 또는 그 그림. <네이버 국어사전>

Fig. 5에서 보듯이, 『三才圖會』의 그림과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의 그림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에는 兩腎의 아래쪽에 尾閭까지 좌우에 각각 하나씩 상하로 길쭉한 직사각형에 가까운 타원으로 묘사한데 반해, 『三才圖會』에는 상하로 길쭉한 두 개의 타원형을 하나로 합친 듯이 변형하였고, 좌우로 길쭉한 타원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 서적은 본래 醫書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그림의 세부묘사를 바꾼 근거도 본문에 제시되지 않아서 그 의도를 알 수 없으며, 다른 醫書처럼 의학적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5) 『類經圖翼』(1624) 「三焦圖」

張介賓은 三焦有形을 지지하는 醫家 중 대표적인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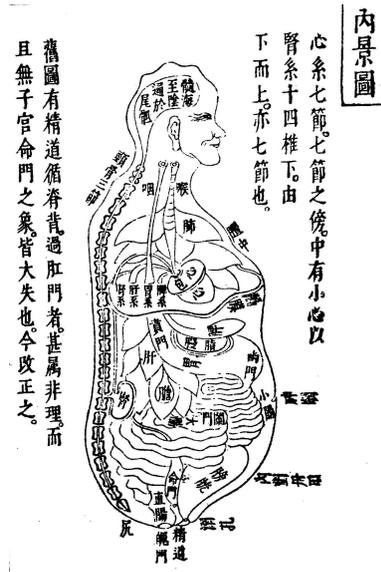


Fig. 6. Atlas of Nei Jing Tu (from *Lei Jing Tu Yi*)

Fig. 6에서 보듯이, 그의 『類經圖翼』 「內景圖」에는 비록 다른 醫書의 臟腑全圖와 마찬가지로 三焦에 대한 표기가 없으나, 「三焦圖」에서 三焦의 형상에 대해 이전의 학설에 비하여 더욱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를 남겼다. 특히 그의 그림은 후세에 큰 영

항을 주어 『醫宗必讀』, 『醫宗金鑑』(臟腑全圖는 없음) 등에서 다시 摹寫되었다.

三焦의 설명은 『類經圖翼』 「三焦圖」의 附記에서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三焦包絡命門辨」에서 더욱 자세하다.

그는 「三焦包絡命門辨」에서 “胸腔과 腹部 주위 상하 전체에 형상이 큰 주머니와 같으며, … 그 안쪽에 한 겹으로 붙어 있고 색깔이 아주 붉어서 형상이 마치 六合과 같아서 모든 陽氣를 호위한다. … 肌肉의 안과 臟腑의 밖이 三焦이다.”<sup>42)</sup>라고 三焦의 形象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Fig. 7. Atlas of Tripple Energizer (from *Lei Jing Tu Yi*)

그의 설명을 살펴보면, 三焦의 形象을 눈으로 확인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시체를 직접 관찰하였는지, 아니면 동물의 시체를 관찰하고서 사람에게 미루어 보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그가 장수로서 활동하였다는 史實<sup>43)</sup>을 고려하면, 사람의 시체를 그가 직접 관

찰할 기회가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Fig. 7에서 보듯이, 인체 내부에 앞뒤로 한 가닥의 빈 공간을 그리고 나서, 몸통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경계선을 표시하고 각각 上焦, 中焦, 下焦라고 표시하였다.

「三焦圖」를 「三焦包絡命門辨」의 설명과 비교하면 두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인체 내부의 앞뒤에 한 줄기 선처럼 2차원의 통로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옷과 같이 몸통 전체를 감싸는, 3차원의 입체 공간을 묘사한 것이다.

둘째, 빈 공간이 실제로는 넓지도 얇지만 그림에서 의도적으로 과장하였다.

三焦의 上下 범위에 대해, 朴은 “몸의 피부와 장부 기관 사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두루는 체강 전체”<sup>44)</sup>라고 해석하였는데, 「三焦圖」와 비교해 보면 이는 옳지 않다.

그 이유는 「三焦圖」에서 보듯이 위로는 咽喉部로부터 아래로는 前陰後陰까지 표시되어 있고, 「三焦圖」안에 附記<sup>45)</sup>를 덧붙여 三焦가 六腑의 하나로서 咽部로 水穀을 받아들이고 二陰으로 배설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三焦의 形象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三焦圖」가, 실질적인 형체로서 존재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 도리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三焦圖에서 묘사된 三焦는 위로는 咽喉部까지 연결되어 앞으로는 喉와 통하고 뒤로는 咽과 통하며, 아래로는 前陰後陰까지 연결되어 앞으로는 前陰과 통하고 뒤로는 後陰과 통하고 있다. 그러나 咽喉와 前陰 後陰 외에 별도로 음식을 섭취하

42)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269. “其於腔腹周圍上下全體, 狀若大囊者, … 且其著內一層, 形色最赤, 象如六合, 總護諸陽, 是非三焦而何! … 固已顯然指爲肌肉之內, 藏府之外爲三焦也.”

43)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255. “軍에 몸담아 榆關, 碣石, 鳳城을 두루 다니고, 압록강을 건너왔다 돌아갔다.”는 조선의 방문 기록과 그의 생전 시기 중에 임진왜란이 발발했다는 사실로부터 그가 임진왜란에 참전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44) 朴赫圭, 張景岳의 三焦包絡命門辨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1(1), 1998, p.353.

45) “(上焦)出於胃口上, 主內而不出. (中焦)當胃之中, 主腐熟水穀, 蒸津液, 化精微, 上注於肺, 化而爲血, 以奉生身. (下焦)起關門之下, 主出而不內.”

거나 공기를 호흡하는 구멍(opening)이 없음을 주지하는 사실이다.

三焦의 실질은, 清代 唐宗海의 인식처럼 五臟六腑와 전신의 肌肉을 감싸는 조직, 즉 횡격막, 배막, 그물막, 창자간막, 및 인체내외의 모든 膜을 포함한다는 주장<sup>46)</sup>이 있다. 그 주장이 일리 있다 하더라도, 張介賓의 「三焦圖」처럼 단일 구조를 이루는 기관도 아니며 咽喉와 前後陰과 통하는 별도의 개구부(opening)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실질적 형태로 존재할 수 없는, 모순적 형상을 묘사한 그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張介賓은 「三焦包絡命門辨」에서 三焦의 형상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지만, 그림 속의 형상물로서는 “主內而不出(上焦), … 主出而不內(下焦)”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이다.

그러므로 上焦의 納食, 納氣의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 咽喉와 통하는 개구부를 묘사하고, 下焦의 대소변을 배출하는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 前後陰과 통하는 개구부를 묘사하였다. 게다가 그런 묘사로도 부족하여, 별도로 “主內而不出(上焦), … 主出而不內(下焦)”의 附記까지 덧붙인 것이다. 이 그림의 묘사는 “큰 주머니와 같고 안쪽에 한 겹으로 붙어있다.”는 문자 설명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에 上焦, 中焦, 下焦의 경계선을 표시하였는데, 비록 上焦와 中焦의 경계는 횡격막을 묘사한 것이라도 치더라도, 中焦와 下焦의 경계와 상응하는 해부학적 구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中焦, 下焦의 경계는 실제 관찰로부터 얻은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三焦의 精이 命門을 통해 배설되는 기전을 나타내고자 三焦의 뒤쪽 통로 속 中焦, 下焦의 경계에 腎臟을 그려 넣었다.

이와 같은 근거로 『類經圖翼』 「三焦圖」는 비록 실제 관찰을 바탕으로 묘사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묘사가 三焦의 기능을 제대로 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형태로 표현되지 않아 그림으

로는 묘사할 수 없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그림에 덧 붙였다.

다시 말하면, 『類經圖翼』 「三焦圖」는 실제 관찰을 통해 그린 寫實畫(realistic picture)의 속성에 다시 그 기능과 역할이 표현된, 즉 개념화된(conceptualized) 속성이 더해진 그림이다. 그러나 개념도(conceptual diagram)의 속성이 사실화의 속성보다 더 강하다.

張介賓이 「三焦圖」를 통해 그 실체와 기능을 비교적 잘 묘사한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즉 三焦의 形象과 “主內而不出(上焦), … 主出而不內(下焦)”의 역할은 잘 표현하였으나,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은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였다.

(6) 『醫宗必讀』(1637) 「改正內境臟腑圖說」



Fig. 8. Atlas of Triple Energizer (from Yi Zong Bi Du)

李中梓의 『醫宗必讀』 「改正內境臟腑圖說」臟腑全圖(우측면도)에 다른 醫書의 臟腑全圖와 마찬가지로 三焦에 대한 표기가 없으나, 三焦에 대한 그림을 별

46) 尹暢烈, 『內經』에 나타난 三焦有形的 根據 및 三焦의 實體,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5(4), 2012, p.62.

도로 두고 있으며, 그 그림은 『類經圖翼』 「三焦圖」를 模寫한 것으로 臨書에 해당된다.

Fig. 8과 같이 그림 자체로부터 살펴보면, 인체 내부의 앞뒤에 上焦, 中焦, 下焦의 평면적인 통로가 있고 목에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앞쪽의 구멍은 上焦, 中焦, 下焦를 거쳐 아래로 앞쪽에 구멍이 있으며, 뒤쪽의 구멍도 三焦로 이어져 아래쪽 뒤쪽에 구멍이 있다.

『醫宗必讀』에 실린 이 그림이 사실 『類經圖翼』을 模寫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類經附翼』 「三焦包絡命門辨」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醫宗必讀』에는 그림 외에 三焦에 대한 설명이 없기에 三焦에 대한 李中梓 자신의 관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림이 『類經圖翼』과 같다는 점으로부터 볼 때, 李中梓의 인식은 張介賓과 거의 같을 것이며, 그는 三焦有形을 지지하였음을 미루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李中梓는 『醫宗必讀』 「改正內境臟腑圖說」에서 三焦의 형상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附記를 덧붙였는데, 이는 『類經圖翼』 「三焦圖」를 模寫하였으므로 그 그림의 성격도 동일하다.

(7) 『藏府指掌圖書』 「三焦圖」

施沛(1585~1661)의 『藏府指掌圖書』(原名은 『藏府經穴指掌圖』)에 「三焦圖」가 실려 있는데<sup>47)</sup>, 그 그림은 본질적으로 『類經圖翼』과 같으므로 그림은 생략한다.

(8) 『醫學原始』 「三焦圖」

王宏翰(1648~1700)의 『醫學原始』에 「三焦圖」가 실려 있는데<sup>48)</sup>, 그 그림은 본질적으로 『類經圖翼』과 같으므로 그림은 생략한다.

(9) 『鍼灸拔萃大成』 「藏府內景之圖」

오카모토잇보코(岡本一抱子)의 『鍼灸拔萃大成』에

「藏府內景之圖」<sup>49)</sup>가 실려 있는데, 이 그림에는 여타 醫書의 臟腑全圖와 달리 三焦에 대한 표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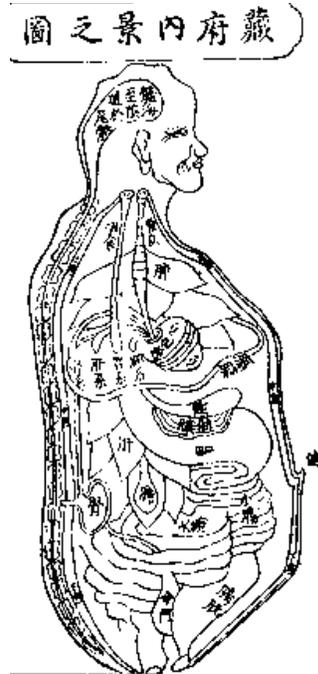


Fig. 9. Atlas of Kura-fu(from Shinkyu Batsusui Taisei)

Fig. 9에서 보듯이, 이 그림의 전체적인 묘사와 命門의 형상과 위치를 근거로 볼 때 『類經圖翼』 「內景圖」와 가장 비슷하다.

그러나 『類經圖翼』 「內景圖」와 다른 점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類經圖翼』 「內景圖」에는 “心系七節. 七節之傍, 中有小心……”의 附記가 있지만 이 그림에는 附記가 없다.

둘째, 이 그림에 인체 내부 앞뒤로 한 가닥의 가늘고 긴 공간을 그리고 나서, 그 속에 작은 글씨로 上部, 中部, 下部에 각각 上焦, 中焦, 下焦라고 표시하였다. 이런 묘사는 『類經圖翼』 「三焦圖」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 다만, 『類經圖翼』 「三焦圖」에는 몸통

47) 施沛. 藏府指掌圖書(海外回歸中醫善本古籍叢書 v.12).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p.618.

48) 王宏翰. 醫學原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p.253.

49) 岡本一抱子. 關田三郎 編. 鍼灸拔萃大成(vol. 1). [cited at August 16, 2015.]. p.41. Available from : URL: <http://www.nl.go.kr/>

의 앞뒤를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두 개의 경계선이 있지만, 이 그림에는 그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앞뒤 공간도 매우 좁다.

그 이유는 臟腑全圖에 三焦의 경계선이 臟腑의 형상을 표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점으로부터 『類經圖翼』 「三焦圖」속의 가로의 두 경계선은 가상선이라고 인식하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또한 삼초가 차지하는 공간이 넓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위와 같은 특징적 묘사로부터 볼 때, 『鍼灸拔萃大成』 「藏府內景之圖」는 『類經圖翼』 「內景圖」에 빠져 있는 三焦의 형상을 『類經圖翼』 「三焦圖」를 참조하여 臟腑全圖 하나에 표현한 것이므로 『類經圖翼』의 「內景圖」와 「三焦圖」의 결합임을 알 수 있다.

「藏府內景之圖」는 본질적으로 『類經圖翼』의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으로 보아, 실제 관찰이나 해부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그림의 속성은 『類經圖翼』 「三焦圖」의 속성과 동일하다.

(10) 『和漢三才圖會』(1712) 「三焦圖」



Fig. 10. Atlas of Tripple Energizer (from *Wakan Sansaizue*)

寺島良安이 譯注한 『和漢三才圖會』에 「三焦圖」<sup>50)</sup>가 실려 있다.

Fig. 10에서 보듯이 이 그림은 『類經圖翼』 「三焦圖」와 비교해 볼 때 비록 묘사가 엉성하고 단순하지만, 인체 내부 앞뒤로 한 가닥의 가늘고 긴 공간을 그린 점, 몸통의 앞뒤를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두 개의 경계선이 있는 점, 인체 내부에 上焦, 中焦, 下焦를 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있다.

『類經圖翼』 「三焦圖」와 다른 점은, 『和漢三才圖會』에는 “上焦如霧, 中焦如瀾, 下焦如瀆”의 附記를 실고 있지만, 『類經圖翼』에서는 다른 내용의 附記를 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和漢三才圖會』는 본래 明代 王圻의 『三才圖會』를 日本에서 譯注한 서적이지만, 원서인 『三才圖會』에 실린 「三焦圖」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手少陽三焦經圖」를 模寫한데 반하여, 『和漢三才圖會』에 실린 것은 도리어 『類經圖翼』 「三焦圖」에 매우 가깝다. 이는 譯註하는 과정에서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에서 표현한 三焦의 형상에 의문을 품고 『類經圖翼』 「三焦圖」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和漢三才圖會』 「三焦圖」의 속성은 『類經圖翼』 「三焦圖」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1) 『醫部全錄』(1725) 「三焦腑形象之圖」

陳夢雷의 『醫部全錄』 「臟腑圖」는 明代 王圻의 『三才圖會』 「臟腑圖」를 본뜬 것이라고<sup>51)</sup> 알려져 있는데, 『三才圖會』 「三焦圖」는 본래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手少陽三焦經圖」에서 유래하였다.

그는 『醫部全錄-臟腑門-三焦』에서 『素問』, 『靈樞』, 『難經』을 인용하고 註釋을 붙였는데, 『難經-三十八難』의 “有名而無形”에 대해 “蓋三焦外有經, 而內無形也.”라고 註釋한 점으로 보아 三焦無形을 지지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Fig. 11에서 보듯이, 그는 「三焦腑形象之圖」에

50) 寺島良安. 和漢三才圖會. [cited at August 16, 2015.]. v.11(經絡).

Available from : URL: <http://lisa.shimane-u.ac.jp/0/collection/da/da.asp?mode=vt&id=1317>

51) 이명철, 박경남, 맹웅재. 明代 王圻의 《三才圖會》 臟腑圖에 대한 考察. 韓國醫史學會誌 . 20(2). 2007. p.156.

無形の 三焦를 그림으로 표현하였는데, 척추 - 腎臟 - 尾閭를 그리고서 兩腎의 위쪽으로 각각 하나의 맥락이 척추와 나란히 위로 뻗어 있고, 兩腎의 아래쪽 尾骶骨 주위에는 하나의 둥근 원을 그려놓았다. 또한 附記에 上焦, 中焦, 下焦의 위치와 기능을 기록하였다<sup>5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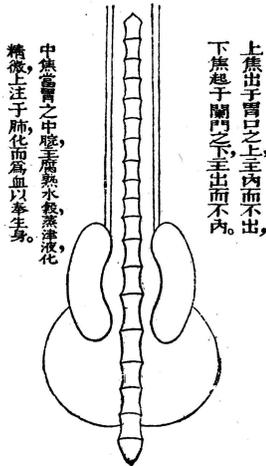


Fig. 11. Atlas of Triple Energizer (from *Yi Bi Qian Lu*)

『醫部全錄』 「三焦腑形象之圖」는 馬蒔의 「手少陽三焦經圖」와 비슷하지만 사실은 『三才圖會』 「三焦圖」를 模寫하고, 또한 그 附記는 『類經圖翼』의 附記로 바뀌어진 것이다.

자세히 말하면,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의 그림은 左腎과 右腎 양쪽의 아래에 상하로 길쭉한 타원에 가까운 모양 두 개로 그려졌지만, 『三才圖會』와 『醫部全錄』의 그림은 左腎, 右腎의 아래에 척추와 좌우 兩腎을 포함하도록 둥근 원 하나로 표현되어 있다.

또 『三才圖會』의 附記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의 附記와 마찬가지로 兩腎의 그림 속에 “三焦爲府,

有名有形, 有經絡.”과 “膀胱爲府, 有名有形, 有經絡.”을 수록함으로써 三焦가 有形임을 나타냈지만, 『醫部全錄』의 附記는 兩腎 속의 附記를 제거하고 그림의 좌우측에 『類經圖翼』 「三焦圖」의 附記<sup>53)</sup>, 즉 三焦가 六腑의 하나로서 咽部로 水穀을 받아들이고 二陰으로 배설하는 역할을 표현한 내용으로 대체하였다.

이처럼 陳夢雷가 三焦를 묘사할 때 『三才圖會』 「三焦圖」를 模寫하되 그림을 변형하고 附記까지 바꾼 의도는, 三焦는 비록 無形이라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三焦가 精氣의 배설과 관련이 있음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水穀을 받아들이고 배설하는 역할을 附記로 나타내려고 한 것이라고 본다.

그림에서 뚜렷하게 부각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馬蒔의 그림은 有形의 三焦를 직접 관찰하였다는 전제로 표현되었지만, 陳夢雷의 그림은 三焦가 無形이라는 인식으로부터 模寫된 것이다. 게다가 馬蒔와 陳夢雷 모두 『類經圖翼』 「三焦圖」와 달리 그림 안에 上焦, 中焦, 下焦를 표시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醫部全錄』 「三焦圖」는 徐遁이 三焦의 외형을 관찰한 경험을 그린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手少陽三焦經圖」에서 유래하였지만, 陳夢雷는 『三才圖會』의 그림을 模寫하되 三焦가 無形임을 표현할 목적으로 『三才圖會』의 그림을 다시 변형·응용함으로써 그 속성이 변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은 처음에는 馬蒔의 그림, 즉 構想畫 중 경험화로 부터 유래하였으나 결국 상상화로 그 속성이 바뀐 것이다.

方有執의 「在表圖」는 도식화된(schematized) 속성이 강하며, 張介賓의 「三焦圖」는 개념화된(conceptualized) 속성이 강한 데 반해 이 그림은 구상화된(representational) 속성이 강하다. 또한 이 그림은 三焦의 上·中·下 경계선을 그리지 않았으며, 三焦의 기능, 역할을 표현하지도 않고 있어서 그 형상이 앞의 두 그림과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하면, 『醫部全錄』 「三焦圖」는 三焦의 형상을 표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上·中·下의

52) 陳夢雷 纂輯. (圖書集成)醫部全錄(v.5). 서울. 대성문화사. 1992. p.377. “上焦出于胃口之上, 主内而不出, 下焦起于闾門之下, 主出而不内. 中焦當胃之中脘, 主腐熟水穀, 蒸津液, 化精微, 上注于肺, 化而爲血, 以奉生身.”

53) “(上焦)出于胃口上, 主内而不出. (中焦)當胃之中, 主腐熟水穀, 蒸津液, 化精微, 上注于肺, 化而爲血, 以奉生身. (下焦)起幽門之下, 主出而不内.”

구조, 기능, 역할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그림이다. 그러나 “主內而不外(上焦), … 主出而不內(下焦)”의 附記를 덧붙임으로써 그런 단점을 극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끝내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이나 三焦의 精이 命門을 통해 배설되는 機轉을 묘사하거나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12) 『醫宗金鑑』(1742) 「三焦圖」

吳謙의 『醫宗金鑑』에는 다른 醫書와 달리 臟腑全圖가 없고 臟腑分圖만 있다. 『醫宗金鑑』 「三焦圖」는 『類經圖翼』을 模寫한 臨書이므로 그림은 생략하며, 『醫宗必讀』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吳謙은 三焦有形을 지지하였으며 그림의 성격도 동일하다.

주목할 점은, 『醫宗金鑑』에는 『類經圖翼』(사실화와 개념도의 조합)으로부터 유래하여 변형·발전되어 독창적인 묘사가 반영된 「經脈圖」(「督脈圖」, 「衝脈圖」 등)가 실려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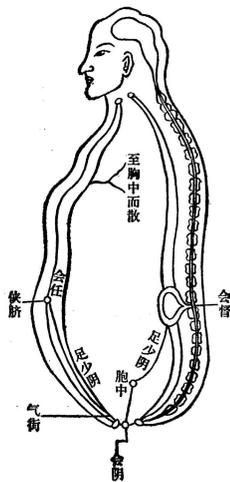


Fig. 12. Atlas of Chong Mai channel(from *Yi Jong Jin Jian*)

「衝脈圖」를 예를 들면, Fig. 12에서 보듯이 인체 내부의 앞뒤로 三焦의 통로가 그려져 있는데 『類經圖翼』 「三焦圖」와 동일한 묘사이지만, 衝脈이 앞으로는 任脈과, 속으로는 足少陰脈과, 뒤로는 督脈과

만나는 상황을 한 가닥의 실선으로 묘사하였으며, 衝脈의 氣가 胸中으로 흩어지는 상황을 가지 모양의 실선으로 묘사한 것이 독창적이다. 이는 『內經』 經脈의 순행 이론을 그림 위에 옮긴 것이다.

『醫宗金鑑』 「三焦圖」는, 사실화(realistic picture)의 속성보다 무형의 개념, 즉 그 기능과 역할을 표현한, 개념화된(conceptualized) 속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 『類經圖翼』 「三焦圖」를 模寫한 臨書이고, 『醫宗金鑑』 「衝脈圖」는 무형인 經脈의 순행이 표시되어 개념화된 속성이 더욱 강화된 그림이다. 이와 같이 개념도(conceptual diagram)로서의 속성이 더욱 강하다는 점으로부터 볼 때, 「三焦圖」와 「衝脈圖」는 눈으로 직접 관찰하여 얻은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더욱 확실하다.

결론적으로 『醫宗金鑑』 「三焦圖」는 『類經圖翼』 「三焦圖」를 模寫한 것으로서 사실화와 개념화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게다가 『醫宗金鑑』 「督脈圖」, 「衝脈圖」 등은 『類經圖翼』 「三焦圖」에 근거하여 또 다시 무형의 개념(經脈의 순행)이 반영되어 창작됨으로써 寫實畫의 속성이 더욱 희석되었다. 한편 『醫宗金鑑』 「督脈圖」, 「衝脈圖」 등은 唐宗海의 『中西匯通醫經精義』에서 그대로 模寫되었다.

(13) 『瘍醫大全』(1760)

顧世澄의 『瘍醫大全』에 실린 三焦圖는 『類經圖翼』을 模寫한 臨書이므로 그림은 생략하며, 그림의 성격도 동일하다.

顧世澄은 『中藏經』을 인용한 말미에 “형체의 색이 아주 붉어서 모든 陽을 다 護衛하니, 형상이 없어 쓸데없이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다.”<sup>54)</sup>라고 하여 張介賓의 설명을 덧붙여 자신이 三焦有形을 지지함을 나타냈다.

(14) 『傷寒醫驗』(1738) 「陽象圖」

盧雲乘의 『傷寒醫驗』에 「陽象圖」<sup>55)</sup>(중의과학원

54) 顧世澄, 瘍醫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63. “形色最赤, 總護諸陽, 非無狀空有名者也.”

55) 盧雲乘, 傷寒醫驗. [cited at August 16, 2015.]. Available from : URL: [http://wellcomeimages.org/indexplus/obf\\_images/ac/ab/ee29ee92327ae279f0e25ff5c388.jpg](http://wellcomeimages.org/indexplus/obf_images/ac/ab/ee29ee92327ae279f0e25ff5c388.jpg)

도서관 소장본)가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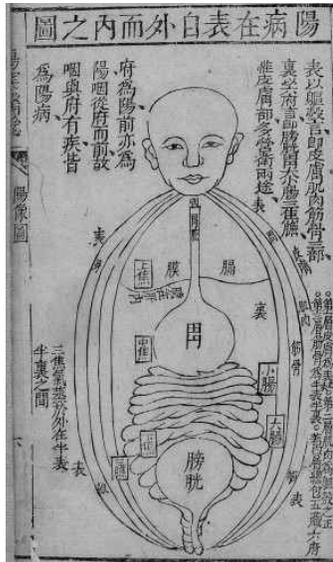


Fig. 13. Atlas of the bodily surface(from *Shang Han Yi Yan*)

Fig. 13에서 보듯이, 이 그림은 『傷寒論條辨』 「在表圖」와 기본적으로 형태와 묘사가 유사한데, 『傷寒論條辨』은 體幹만 그린 데 반하여 이 그림은 사람의 얼굴까지 그려있다.

附記도 「在表圖」에는 “表以軀殼言. 府在前, 咽從府而前, 前爲陽, 表亦陽, 故府合表而曰陽病.”이라고 간단히 표기하였으나, 「陽象圖」에는 “表以軀殼言”의 아래에 “即皮膚肌肉筋骨三部. 裏以六府言, 即膀胱胃大小腸三焦膽. 惟皮膚部, 多營衛兩途.”라는 말을 덧붙였고, 우측 하단에 “○第一層, 皮膚爲表. ○第二層, 肌肉爲軀殼之正. ○第三層, 筋骨爲半表半裏. ○第四層, 總包五藏六府.”를, 좌측 하단에 “三焦氣蒸於外, 在半表半裏之間.”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陽象圖」의附記는 비록 「在表圖」에 비하여 자세하지만 三焦에 대한 설명은 “三焦는 氣가 밖으로 훈증하니 半表半裏의 사이에 있다.”에 불과하여 三焦 자체의 기능, 역할을 표현하기 보다는 傷寒病의 傳變科程에서 三焦가 半表半裏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傷寒醫驗』 「陽象圖」는 『傷寒論條辨』 「在表圖」와 같은 계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그림의 목적 자체가 三焦를 묘사하기 위함이 아니므로 도식(schema)의 속성이 강하다.

(15) 『陳氏秘囊錄』(1811) 「側人臟腑之圖」

일본 에도 시대 전중기의 사람 陳道庸이 지은 『陳氏秘囊錄』의 「側人臟腑之圖」<sup>56)</sup>가 필사본의 형태로 전해져오며, 현재로서는 그 책이 전해져오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Fig. 14. Atlas of Kura-fu lat. view(from *Chin shi Hinoroku*)

Fig. 14에서 보듯이, 이 그림에는 여타 醫書의 臟腑全圖와 달리 인체 부위의 명칭이 여러 군데 표시되어 있으며, 그 중에 三焦에 대한 표기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判각된 서적은 대부분 채색이 되어 있지 않은데 반하여 필사본은 명암이나 농담의 변화가 거의 없이 여러 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56) 陳道庸. 陳氏秘囊錄. [cited at August 16, 2015.]. Title 11(漢方の医書に見られる解剖図). Available from : URL: <http://hiraokaryuji.web.fc2.com/brain.html>

그림 역시 다른 필사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채색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그림의 전체적인 묘사와 命門의 형상과 위치를 근거로 볼 때, 본질적으로 『鍼灸拔萃大成』 「藏府內景之圖」와 동일함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鍼灸拔萃大成』은 인체 내부에 上·中·下 三焦를 비롯한 각 기관의 명칭을 표시하고 인체 외부에는 배꼽(臍)만 표시한 데 반하여, 이 그림은 인체 외부에 上·中·下 三焦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체 각 부분의 명칭(人中, 水溝, 承漿, 泄瀉, 長強 등)과 함께 그림의 우측 하단에 “胃腸, 膈之下, 小腸之上. 有小腸, 臍之上. 有大腸, 臍當. 有膽, 肝短葉間. 有膀胱腎下有.”와 좌측 상단에 “胸第… 六. 小… 八□也大口三者前胸矣. …小□二者且右…中… 穴孔… 人呼時氣孔出…呼吸出入…陰陽氣, 此後肉身分布”의 희미한 글씨로 附記가 실려 있다.

다만, 웹을 통하여 얻은 그림이라서 해상도가 높지 않아서 글자가 명확하지 않으며 명확한 글자라도 誤字로 보이는 곳이 많으므로, 이 자료를 통해서도 附記의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추후 해상도가 높은 그림을 통해 이 그림의 附記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側人臟腑之圖」는 『鍼灸拔萃大成』 「藏府內景之圖」

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다시 「藏府內景之圖」는 『類經圖翼』의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 그림의 속성은 개념도(conceptual diagram)의 속성이 사실화의 속성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16) 『解體發蒙』(1816) 「上下兩焦連屬圖」, 「三焦府後面圖」

일본 三谷樸의 『解體發蒙』에 三焦와 관련한 그림으로 「上下兩焦連屬圖」, 「三焦府後面圖」<sup>57)</sup>의 2가지를 싣고 있다.

이 서적은 5권 5책의 목판본으로서 彩色圖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판각된 여러 醫書들이 채색도가 없다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인용한 서적의 판본은 1813년(文化十年)에 인쇄된 것인데, 활자 모양이 매우 세련되고 그림의 묘사가 매우 세밀하고 정교하며, 비록 명암과 농담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색으로 채색되었다는 점에서 그 당시 일본 인쇄술의 수준이 매우 뛰어났음을 짐작하게 한다.

Fig. 15에서 보듯이, 「上下兩焦連屬圖」, 「三焦府後面圖」에서 표현하고 있는 三焦의 형상은 본 논문에서 다른 여타 三焦圖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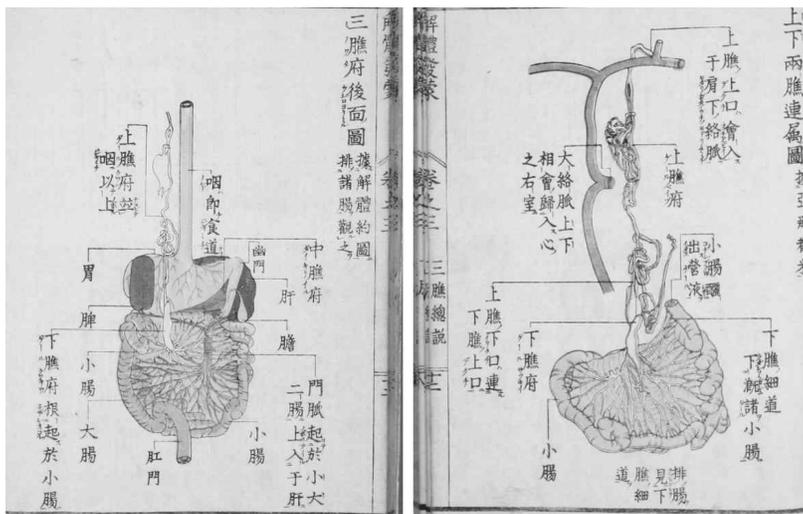


Fig. 15. Atlases of Triple Energizer(from *Kaika hatsumo*)

三谷樸는 『解體發蒙』卷三에서 “上焦는 胸管, 中焦는 大機里兒, 下焦는 奇縷科白”<sup>58)</sup>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들의 현대 명칭은 上焦(胸管)는 림프계통의 胸腺이며, 中焦(大機里兒)는 췌장이며, 下焦(奇縷科白)는 乳糜管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야마와키 도요(山脇東洋)가 1754년에 公許를 얻어 일본에서 최초로 사형수의 시체를 해부하고 그것을 기록하여 1759년 『藏志』로 출간한 바<sup>59)</sup> 있고, 가와구치 신닌(河口信任)이 1770년에 막부로부터 허락을 받아 두 번째로 해부하여 1772년에 『解屍編』으로 출판된 이후로 가와구치 가문의 해부학 전통이 시작되었다<sup>60)</sup>고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史實로부터 三谷樸은 당시에 빈번하게 이루어진 해부의 관찰로부터 「上下兩焦連屬圖」, 「三焦府後面圖」와 같이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얻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上下兩焦連屬圖」의 제목 아래에 “據亞那都米”라고 되어 있고, 그림에 小腸이 표시되어 있으며, 附記에 “上焦의 上口는 어깨아래의 絡脈(쇄골하정맥)으로 모여 들어간다. (上焦府의 위치에서) 어깨아래의 大絡脈이 위아래로부터 합쳐져서 우심실로 들어간다. 上焦의 下口는 下焦의 上口과 이어져 있다. 小腸은 營液을 빚어낸다. (下焦府) 下焦의 細道는 아래로 小腸으로 주입된다. (小)腸을 밀쳐보면 下焦의 細道가 보인다.”<sup>61)</sup>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여기

에서 “據亞那都米”는 이 그림이 해부학(anatomy)에 근거하였다는 뜻이다.

「上下兩焦連屬圖」에서 上焦府 자체의 모양과 거기에서 상하로 뻗어 나온 맥락의 형태와 그 附記를 종합하여 볼 때, 上焦府는 흉골 내측에 붙어있는 胸腺(thymus)의 묘사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三焦府後面圖」의 제목 아래에 “據解體約圖, 排諸腸觀之”라고 되어 있고, 그림에 胃, 脾, 肝, 膽, 中焦府, 幽門, 小腸, 大腸, 肛門이 표시되어 있으며, 附記에 “咽은 즉 식도이다. 上焦府는 식도와 나란히 올라간다. 下焦府는 小腸에서 시작한다. 門脈은 小腸과 大腸에서 시작하여 위로 肝으로 들어간다.”<sup>62)</sup>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據解體約圖, 排諸腸觀之”는 이 그림이 『解體約圖』에 근거하였고 小腸과 大腸을 밀쳐서 본 그림이라는 뜻이다.

「上下兩焦連屬圖」에서 脾는 상하로 길쭉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현대 해부학의 지라(spleen)와 닮았으며, 中焦府는 둥근 머리와 뾰족한 꼬리를 가진 기다란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췌장(이자, pancreas)과 닮아 있다.

『解體發蒙』의 「上下兩焦連屬圖」, 「三焦府後面圖」는 三焦의 형상이 매우 실제적으로 묘사되었으며, 두 그림 모두 사실화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그림들은 三焦에 대한 기존의 學說을 반박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 그려진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에서 실질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의 묘사나 三焦의 精이 命門을 통해 배설되는 기능 등의 三焦의 다양한 기능은 이 그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 (17) 『醫林改錯』(1830)

王清任은 『醫林改錯』에서 舊說의 臟腑全圖를 수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舊說의 臟腑分圖의 오류까지 지적하였다.

그는 「古人臟腑圖」에서 「三焦圖」를 수록하였는데, 「親見改正臟腑圖」에서 「氣府」, 「血府」, 「出水道」 등

57) 三谷樸. 解體發蒙(v.3). 日本. 大坂書林, 京都書林. 1813. p.12. [cited at August 16, 2015].

Available from : URL: [http://www.wul.waseda.ac.jp/kotenseki/html/ya09/ya09\\_00862/](http://www.wul.waseda.ac.jp/kotenseki/html/ya09/ya09_00862/)

58) 三谷樸. 解體發蒙(v.3). 日本. 大坂書林, 京都書林. 1813. p.14. [cited at August 16, 2015].

Available from : URL: [http://www.wul.waseda.ac.jp/kotenseki/html/ya09/ya09\\_00862/](http://www.wul.waseda.ac.jp/kotenseki/html/ya09/ya09_00862/)

59) 김성수. 에도(江戶) 시대 해부학의 발전. 21(1). 의사학. 2012. p.112.

60) 김성수. 에도(江戶) 시대 해부학의 발전. 21(1). 의사학. 2012. p.129. “가와구치 학문에서 의학을 하게 된 것은 네덜란드 商館醫인 카스파(Caspar Schamberger)에게서 외과의술을 배운 료안(良庵, 1629~1714)에게서 시작된다.”

61) 三谷樸. 解體發蒙(v.3). 日本. 大坂書林, 京都書林. 1813. p.12. “上焦上口, 會入于肩下絡脈. (上焦府) 大絡脈上下, 相會歸入心之右室. 上焦下口連下焦上口. 小腸穢出營液. (下焦府) 下焦細道下瀆諸小腸. 排腸見下焦細道.”

62) 三谷樸. 解體發蒙(v.3). 日本. 大坂書林, 京都書林. 1813. p.12. “咽卽食道. 上焦府竝咽以上. 下焦府根起於小腸. 門脈起於小大二腸, 上入于肝.”

으로 대신하였다. 또한 그는 「方紋」에서 “내가 三焦에 대해 논하지 않은 것은 (三焦를 확인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sup>63)</sup>라고 설명하고, 「血府」에서 “격막 이상은 피로 가득 차 있기에 ‘血府’라고 한다.”<sup>64)</sup>라는 附記를 덧붙였다. 이로써 三焦學說을 부정하고 대신 血府, 氣府, 出水道 등의 독특한 개념으로 교체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16. Atlas of Xue Fu(血府)(from *Yi Lim Gai Cuo*)

그의 「血府」와 附記는 Fig. 16과 같다. 「血府」는 인체의 단면이 唐宗海처럼 사실적으로 묘사되지 않았으며, 그의 다른 그림과 비교할 때 횡격막을 하나의 선으로 지나치게 단순하게 표현하였으며, 횡격막의 위치도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다.

비록 그가 실제 관찰을 통해 臟腑圖를 그렸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 그림은 唐宗海처럼 인체의 흉복강의 시상면도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며, 「血府」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개념도(conceptual

diagram)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18) 『中西匯通醫經精義』(1892) 「三焦圖」

唐宗海는 당시의 해부학에 영향을 받아 『中西匯通醫經精義』에서 이전의 그림과는 성격이 아주 다른 「三焦圖」를 남겼다. Fig. 17을 살펴보면, 다른 그림과는 달리 사실화(realistic picture)의 속성이 매우 돋보인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념도(conceptual diagram)의 속성을 지닌 그림, 즉 『醫宗金鑑』의 「督脈圖」, 「衝脈圖」 등을 함께 模寫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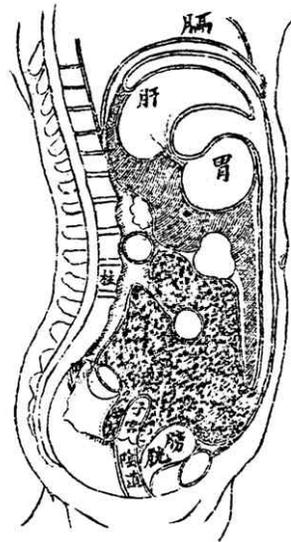


Fig. 17. Atlas of Triple Energizer(from *Yi Jing Jing Yi*)

그는 『中西匯通醫經精義』에서 “中國은 唐代, 宋代 이후로 三焦가 무슨 물건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醫法이 혼히 와전되었다. 西醫는 連網이라고 하여 三焦의 형태를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곳에서 發源하는지, 그 이름이 어느 기운을 맡는지는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안다고 해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sup>65)</sup>라고 하여 서양학설과 동양

63) 王清任. 醫林改錯. 서울. 一中社. 1991. p.53. “余不論三焦者, 無其事也.”

64) 王清任. 醫林改錯. 서울. 一中社. 1991. p.11. “膈膜以上, 滿腔皆血, 故血府, 名曰血府.”

65) 唐宗海.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 “中國自唐宋後, 不知三焦爲何物, 是以醫法多訛. 西醫爲連網, 知其物矣. 然不知其發源何處, 所名司何氣, 是以知猶不知.”

학설이 모두 三焦를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三焦의 전체적인 형상에 대해 『血證論臟腑病機論』에서 “三焦란 사람 몸의 상하 내외를 서로 연결하는 油膜으로서, 몸 안에서는 臟腑를 연결하고 밖으로는 전신의 白膜, 즉 腠理가 된다.”<sup>66)</sup>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 上焦, 中焦, 下焦의 性狀이 서로 다름에 대해 『中西匯通醫經精義』에서 “命門은 곧 腎系이다. 腎系가 아래로 ‘連網의 油膜’을 만들어내니 이것이 下焦이고, 腎系가 가운데에서 ‘板油’를 만들어내니 이것이 中焦이고, 위로 ‘膈膜’을 만들어 내니 이것이 上焦이다.”<sup>67)</sup>라고 하여 上焦는 ‘膈膜’, 中焦는 ‘板油’<sup>68)</sup>, 下焦는 ‘油膜’<sup>69)</sup>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그가 膜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三焦와 命門의 근원이 같다고 주장함으로써 三焦의 精이 命門을 통해 배설되는 기능을 「三焦圖」에 표현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그는 膈膜(上焦), 板油(中焦), 油膜(下焦)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통해 三焦가 다른 臟腑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논리를 펴는데, “兩腎 가운데 한 가닥의 油膜이 命門인데, 곧 이것이 三焦의 근원이 된다. 油膜이 위로 肝氣, 膽氣, 및 胸膈과 이어지다가, 위로 心으로 들어간 것이 包絡이 된다. 油膜이 아래로 小腸, 大腸과 이어지고, 앞으로 膀胱, 下焦夾室, 즉 血室, 氣海와 이어진다. 몸 전체를 따라 살가죽이 되니 살을 뚫고 밖으로 나가서 전신을 덮은 白膜이 된다. 이 모든 것이 三焦가 맡으니, 白膜

은 주리가 된다.”<sup>70)</sup>라고 설명하였다.

Fig. 17에서 보듯이, 그는 오른쪽에서 바라본 인체 복강의 시상면도를 그리고서 그림 안에 膈, 肝, 胃, 子宮, 柱 등은 표기하였으나, 정작 三焦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기 없이 이 그림을 ‘三焦圖’로 명명하였다.

Fig. 17에서 肝, 胃의 아래쪽에 그려진 빗금은 그가 말한 ‘板油’로 가득한 곳인데, ‘板’이라는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빗금으로 그렸으며, 그 아래에 몽글몽글한 형태로 묘사된 부분은 그가 말한 ‘油膜’에 둘러싸인 곳인데, ‘油’라는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기름이 뭉친 듯 묘사하였다. 또한 膈膜(上焦), 板油(中焦), 油膜(下焦) 등의 ‘膜’의 특성을 뚜렷하게 표현하기 위해 두 줄의 굵은 선으로 묘사하였다.

板油和 油膜 사이의 격막은 횡격막과 비슷하게 上焦와 中焦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로 묘사되었지만, 板油和 油膜 사이의 격막은 복부 표층 쪽이 부분적으로 열려있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類經圖翼』 「三焦圖」와 달리, 그림에 上焦, 中焦, 下焦의 표기가 없다.

그는 上焦와 中焦의 경계에 해당하는 해부학적 구조가 膈膜(橫膈膜)이라고 하였으나, 張介賓과 마찬가지로 中焦와 下焦의 경계를 이루는 구조물(장간막에 해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그림을 통해 비록 中焦와 下焦의 경계를 이루는 구조물이 『類經圖翼』 「三焦圖」의 가상적 경계선처럼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적 묘사에도 불구하고, 三焦, 膀胱에 대한 舊說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실제 생리상황과 다르다는 비판을 받았다.<sup>71)</sup> 즉, 『素問靈蘭秘典論篇』에서 膀胱에서 소변이 배출되는 기전을 설명하는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의 이

66) 唐宗海. 唐容川醫學全書血證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8. “三焦, 古作膈, 卽人身上下內外相聯之油膜也. … 按兩腎中一條油膜, 爲命門, 卽是三焦之原. 上連肝氣膽氣, 及胸膈, 而上入心, 爲包絡. 下連小腸大腸, 前連膀胱, 下焦夾室, 卽血室氣海也. 循腔子爲肉皮, 透肉出外, 爲包裹周身之白膜, 皆是三焦所司. 白膜爲腠理.”

67) 唐宗海.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 “命門卽腎系. 由腎系下生連網油膜, 是爲下焦; 中生板油, 是爲中焦; 上生膈膜, 是爲上焦. 其根源實出于腎系, 腎系卽命門也. 命門爲相火之根, 三焦根于命門, 故司相火, 而屬于腎. 夫腎具水火, 合三焦者, 是相火所合也. 又云腎上連肺者, 金水相生, 是水陰之所合也, 故腎雖一臟, 而將爲兩臟矣.”

68) 현대 해부학의 ‘대망막’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69) 현대 해부학의 ‘장간막’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70) 唐宗海. 唐容川醫學全書血證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8. “按兩腎中一條油膜, 爲命門, 卽是三焦之原. 上連肝氣膽氣, 及胸膈, 而上入心, 爲包絡. 下連小腸大腸, 前連膀胱, 下焦夾室, 卽血室氣海也. 循腔子爲肉皮, 透肉出外, 爲包裹周身之白膜, 皆是三焦所司, 白膜爲腠理.”

71) 尹暢烈. 三焦有形說에 관한 研究. 大韓醫學原典學會誌. 24(6). 2011. p.141.

론을 지지할 목적으로, 당시에 서양 해부학을 통해 이미 알려진 해부학적 구조물, 즉腎에서膀胱으로 이어지는輸尿管을 배제하였다.

요약하면, 『中西匯通醫經精義』 「三焦圖」는 三焦의 형상이 매우 실제적으로 묘사되어 사실화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脂膜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三焦의 精이 命門을 통해 배설되는 기능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적 묘사로 인해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 “主內而不出(上焦), … 主出而不內(下焦)”가 개념화된(conceptualized) 속성은 그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실질을 중시하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개념화된 그림들(『醫宗金鑑』의 「督脈圖」, 「衝脈圖」)을 唐宗海가 여전히 模寫하였다는 점으로부터 그가 中西會通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통 醫書에 실려 있는 三焦圖는 전통 동양화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전통 동양화는 대개 유일한 작품으로 존재하며 미를 추구하고 있지만, 醫書는 대부분 판각을 통해 널리 유통되기 때문에 그 속의 三焦圖는 유일본의 회화이기보다는 복본이 다수 존재하는 판화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미를 표현하기보다는 의학 지식의 전달이라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당시의 출판, 인쇄의 기술적 제한으로 인해, 그림은 대부분 채색되지 않으며 아주 가는 선이나 아주 작은 점으로 표현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三焦圖에서 동양화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양화의 특성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림 자체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곧 설명’인 동시에 그림과 함께 실린 ‘附記가 곧 그림’이고 ‘그림이 곧 附記’라는 讀畫의 특징이 있다.

둘째, 동양화가의 전문성과 그림을 대하는 특수성이 있다. 예전의 동양화가는 사실적 묘사를 중시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고자하는 대상의 本意를 표현하려고 애썼다.<sup>72)</sup>

셋째, 동양 그림의 표현기법<sup>73)74)</sup>, 구도, 원근법, 다중시점<sup>75)</sup>, 六法<sup>76)</sup> 등의 특성이 있다.

동양화의 특성이 三焦圖에서도 발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을 직접 관찰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곧장 그린 것이 아니라 기억에 의존하여 나중에 그린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聖人에 의해 창시되어

는 그림을 뽑았다. 동양화는 기억으로 그림을 그린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관찰한다. 이때의 관찰은 서양화가가 대상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서양화는 대상을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찰하지만, 동양화는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관찰한다. 동양화는 대상의 본연 속으로 자신을 참여시켜 대상과 자신을 하나 되게 하고, 대상과의 동화가 충분히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73) 이성도, 김혜숙, 김서진, 손명선. 전통 미술 문화 교육. 서울. 미진사. 2005. p.63. “동아시아의 회화는 전통적으로 북종화와 남종화로 나뉜다. 이것은 명말 막시룡과 공기창, 진계유가 제시한 남북종론에서 나온 개념이다. 북종화는 직업 화가들이 짙은 채색과 꼼꼼한 필치를 사용하여 대상의 외형 묘사에 주력해 그린 그림으로 화려하고 귀족적 취미에 맞는 기교적 표현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종화는 문인들이나 사대부가 주류를 이루는 계층의 그림으로 수묵선염을 주로 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하였다. 남종화는 몰골법을 이용한 수묵담채화로 寫意的이고 주관적 표현을 선호한다.”

74) 한명식. 예술을 읽는 9가지 시선. 파주. 청아출판사. 2011. pp.33-35. “동양화가 서양화가처럼 밑그림을 그리거나 화면 위에 미리 구도를 잡는 등의 기초 작업을 하지 않는다. 서양화가가 화면에서 준비하는 모든 기초 작업을 동양화는 마음속에서 준비한다. 화가의 머릿속에서 미리 형성되고 다듬어진 하나의 이미지는 순간적인 붓놀림을 통해 화면 위에 그려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양화는 서양화보다 실제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짧다. 하지만 그림에서 틀린 부분이 생기더라도 수정이나 덧칠을 할 수가 없다.”

75) 이성도, 김혜숙, 김서진, 손명선. 전통 미술 문화 교육. 서울. 미진사. 2005. p.63. “동아시아의 전통 회화는 선, 여백, 먹의 농담을 중시하면서 평면적, 寫意的, 주관적 느낌이나 표현을 선호한다. 작가의 정신을 강조하며 소재나 주제에서 상징성이 강하고 대상의 사실적 표현보다는 대담한 생략과 암시가 두드러진다.”

76) 마이클 서리번 지음. 한정희, 최성은 옮김. 중국미술사. 서울. 도서출판 예경. 2011. pp.87-88. “6세기 중반 謝赫은 『古畫品錄』에서 중국을 비롯한 동양 회화와 화가들을 평가하는 六法, 즉 氣韻生動, 骨法用筆, 應物象形, 隨類賦彩, 經營位置, 轉移模寫를 제시하였다.” 이 六法은 중국의 모든 예술평론의 중심축이 되어 왔기에 동양 그림을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72) 한명식. 예술을 읽는 9가지 시선. 파주. 청아출판사. 2011. p.33. “북송의 화원에서는 인원을 뽑을 때 지금처럼 정물화나 사생화 실기 능력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문관을 뽑는 과거처럼 畫題를 試題로 내걸어 이 시의에 맞

당시에 공인된 이치에 따라 묘사하였다.

둘째, 남종화의 물골법과 유사하게 굵은 단선으로 표현되었으며, 수정이나 덧칠한 흔적이 없다. 이런 기법이 사용된 까닭은 醫書 속의 三焦圖는 대개 관각을 거치기 때문이다.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이고 세밀한 묘사보다는 생략과 암시가 두드러지며, 원근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셋째, 謝赫의 六法 중 비록 氣韻生動은 그림에서 찾아보기 어렵지만, 하나의 선으로 묘사한 것은 骨法用筆에, 대상에 충실하게 묘사한 것은 應物象形에, 비록 일부이지만 채색된 臟腑圖는 隨類賦彩에, 적절한 구도는 經營位置에, 당시의 화공이 臟腑의 형상을 그릴 때마다 인체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 주로 模寫에 의존하였다는 점은 轉移模寫에 해당한다.

다만 『解體發蒙』의 「上下兩膻連屬圖」, 「三膻府後面圖」와 唐宗海의 『中西匯通醫經精義』 「三焦圖」는 서양 회화의 영향과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 물골법, 骨法用筆, 轉移模寫 등의 동양화의 특성을 따르지 않았으며, 그 목적 역시 동양 그림의 傳神寫照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唐宗海가 실제 형상을 중시함으로써 전통의학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오히려 『內經』의 전통의학이론을 충실히 설명하는 데 활용하였음을 『中西匯通醫經精義』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게다가 그는 “西醫가 해부를 통해 보고 징험하여 인체의 背面, 前面, 左右內外가 층층마다 자세히 분석되었지만 각 층마다 陰陽을 구분하지 못하였으니, 다만 그 형상만 알고 그 기운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부한 것으로는 다만 죽은 시체의 형상만 징험할 수 있지, 산 사람의 氣化를 어찌 능히 볼 수 있겠는가!”<sup>77)</sup>라고 하여, 비록 실제 형체를 중시하였지만 여전히 그 형상에는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다고 여겼다.

### III. 結 論

三焦의 形象에 대한 醫家の 인식에 대해 주로 문자로만 연구가 이루어지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三焦圖에 동양그림의 특징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림과 附記를 동시에 중시하는 書畫一致論의 방법을 활용하여 三焦圖의 특징과 의의를 탐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三焦無形을 주장한 樓英은 『醫學綱目』 「臟腑明堂圖」에 三焦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그 附記에서 三焦有形의 근거를 처음 제시한 單驥의 말을 인용하였다. 三焦의 실질에 대해 자신의 관점과 모순되는 전체를 지닌 내용을 그가 거리낌 없이 인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三焦 내의 精氣’ 자체는 三焦有形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三焦 形象圖는 그 묘사된 형상에 따라 吳嘉言의 『鍼灸原樞』 「三焦形象之圖」, 方有執의 『傷寒論條辨』 「陽病在表自外而內之圖」, 馬蒔의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手少陽三焦經圖」, 張介賓의 『類經圖翼』 「三焦圖」, 三谷樸의 『解體發蒙』 「上下兩膻連屬圖」, 「三膻府後面圖」, 唐宗海의 『中西匯通醫經精義』 「三焦圖」 등 6종의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1종) 吳嘉言은 三焦를 胸中부터 尾閭까지 이어진, 형체가 있는 도로(經絡)로 묘사하였으나 그와 비슷한 해부학적 구조는 찾을 수 없다. 그의 그림은 無形의 元氣가 상하로 왕래하는 것을 형상화한 構想畫(그 중 상상화)이면서 인체 외곽을 추상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2종) 方有執은 三焦를 肌肉의 안쪽, 中焦의 높이에 길쭉한 막대모양으로 표시하는 동시에 상·중·하 위치로서 묘사하였다. 그의 그림은 실제 관찰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며, 傷寒病의 傳變을 표현하기 위한 도식(schema)의 특징이 가장 뚜렷하다. 盧雲乘은 方有執의 그 그림을 비슷하게 模寫하되 얼굴을 표현하고 附記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3종) 馬蒔은 三焦의 외형을 직접 관찰한 徐遁의 經驗(脂膜說)에 근거하여 左腎, 右腎 위쪽에 각각 한

77) 唐宗海,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 “西醫剖割視驗, 人之背面前左右內外, 層析詳矣, 而不能將各層分出陰陽, 則止知其形, 不知其氣, 以所剖割, 只能驗死尸之形, 安能見生人之氣化哉.”

줄기의 맥락을 그리고서, 兩腎의 아래쪽에 尾閥까지 좌우에 각각 하나씩 상하로 길쭉한 타원형으로 표시하였다. 그의 그림은 三焦의 精이 命門을 통해 배설됨을 묘사한 것으로 構想畫 중 간접적인 경험화에 속한다. 王圻가 馬蒔의 그림을 약간 변형하여 模寫하였고(臨畫에 속함), 陳夢雷는 또다시 王圻의 그림을 模寫하였으나 三焦가 無形임을 주장할 목적으로 그 附記를 『類經圖翼』의 附記로 바꿔치기하였다. 그러나 三焦의 上·中·下 경계나 고유기능을 표현하지 못하였다. 陳夢雷의 그림은 馬蒔가 ‘외형’을 관찰한 경험을 묘사한 구상화 중 ‘경험화’로부터 유래하였으나, ‘무형’의 三焦를 형상화한 ‘상상화’로 변질되었으며 馬蒔의 본래 의도도 훼손되었다.

(4종) 張介賓은 三焦의 형상을 눈으로 확인하여, 문자를 통해서만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으나, 그림으로는 인체 내부의 앞뒤로 한 줄의 빈 공간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묘사하였고(사실화와 개념도의 조합으로서 개념도 성격이 강함), 그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三焦의 기능을 설명하는 附記를 덧붙였다.

李中梓, 顧世澄, 施沛, 王宏翰은 張介賓의 그림과 附記를 模寫하였으며(臨畫), 오카모토잇보코(岡本一抱子)는 『類經圖翼』의 「內景圖」와 「三焦圖」를 참고하여 臟腑全圖 자체에 三焦의 형상을 묘사하였으며(「藏府內景之圖」), 陳道庸은 다시 「藏府內景之圖」를 비슷하게 模寫하였으며, 寺島良安은 『類經圖翼』 「三焦圖」를 변형하여 模寫하고 附記를 교체하였다. 吳謙은 張介賓의 「三焦圖」를 模寫하고, 동시에 그에 근거하여 「督脈圖」, 「衝脈圖」를 창작하였는데, 그의 그림은 三焦의 기능이 개념화된(conceptualized) 특징이 더욱 잘 드러나며, 唐宗海는 다시 吳謙의 「督脈圖」, 「衝脈圖」를 模寫하였다.

(5종) 三谷樸은 당시 일본에서 활발해진 해부학이 뛰어난 인쇄술을 바탕으로 「上下兩膈連屬圖」, 「三膈府後面圖」를 남겼는데, 그 그림들은 여타 三焦圖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며, 사실화로 분류된다. 그가 지적한 三焦는 현대 해부학적 구조와 제대로 대응되고 있는데, 이는 三焦에 대한 기존의 學說을 반박하거나 부정하기 위함

이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에서 실질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의 묘사나 三焦의 精이 命門을 통해 배설되는 기능 등의 三焦의 기능은 이 그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6종) 唐宗海는 해부학에 근거하여 인체 복강 전체를 시상면도의 구도로 그렸는데, 그 그림은 三焦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사실화에 속하며 개념도의 속성이 많이 희박하다. 그는 三焦의 실질은 膜이라고 여기고, 膈膜(上焦), 板油(中焦), 油膜(下焦) 등의 ‘膜’과 板油, 油膜을 각각 두 줄의 굵은 선과 빗금이나 몽글몽글한 형태로 잘 묘사하였고, 三焦의 精이 命門을 통해 배설되는 기능을 脂膜과 연관하여 이해하였다. 中焦와 下焦의 경계로 표현된 구조물은 『類經圖翼』 「三焦圖」의 가상적 경계선과 대응되는 것이지만, 그의 그림에서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과 같은 三焦의 속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4. 三焦圖에서 전통적인 동양그림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대체로 남종화의 몰골법과 비슷하게 굵은 단선으로 표현되었으며, 氣韻生動, 骨法用筆, 應物象形, 隨類賦彩, 經營位置, 轉移模寫 등 六法의 대부분이 그림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解體發蒙』의 「上下兩膈連屬圖」, 「三膈府後面圖」와 『中西匯通醫經精義』 「三焦圖」는 서양 회화의 영향과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이전의 그림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인다.

## References

1. Chen Meng Lei(Editor). (Tu Shu Ji Cheng)Yi Bu Quan Lu(v.5). Seoul. Dae Seong Mun Hwa Sa. 1992. p.345, 377.
2. Cho Yongjin. How to read Oriental Painting. Seoul. Jim Mun Dang. 2014. p.3, 19, 21.
3. Dong Yang Ui Hak Dae Sa Jeon Publishing Committee. Dong Yang Ui Hak Dae Sa Jeon(vol.8). Seoul. Kyung Hee University Publishing. 1999. p.475.
4. Gu Shi Cheng. Yang Yi Dai Quan. Bei Jing.

- Ren Min Wei Sheng Publishing Co. 1996. p.163.
5. Han Myeongsik. Nine viewpoint for reading art. Paju. Cheong A Publishing Co. 2011. p.37. pp.33-35.
  6. Hong Wonsik. Jung Gug Ui Hak Sa. seoul. Dong Yang Ui Hag Yeon Gu Won. 1987. p.255.
  7. Hua Tuo. Hua Tuo Zhong Cang Jing. Tai Bei. Zi You Publishing Co. 1978. p.27.
  8. Huang Long Xiang(Editor). Zhong Guo Zhen Jiu Shi Tu Jian. Qing Tao. Qing Tao Publishing Co. 2003. p.25.
  9. Lee Seongdo, Kim Hyesuk, Kim Seojin, Son Myeongseon. Traditional Art Culture Education. Seoul. Mi Jin Sa. 2005. p.62, 63, 69, 70.
  10. Lou Ying(Author). Jin Jupyo(Exegetist). (explanatory notes)Yi Xue Gang Mu. Seoul. Beob In Mun Hwa Sa. 2010. pp.175-196.
  11. Lou Ying. Yi Xue Gang Mu(Xia). Seoul. Il Jung Sa. 1984. p.15, pp.229-264.
  12. Lou Ying. Yi Xue Gang Mu(Zhong Guo Yi Xue Da Cheng Xu Ji v.22-1). Shang Hai. Shang Hai Ke Xue Ji Shu Publishing Co. 2000.
  13. Ma Shi. Huang Di Ne Jjing Ling Shu Zhu Zheng Fa Wei. Tai Bei. Tai Lian Guo Feng Publishing Co. unknown year. p.108.
  14. Michael Sullivan(Author). Han Jeonghui, Choi Seongeun(Translator). The Arts of China. Seoul. Yekyong Publishing Co. 2011. pp.87-88.
  15. Shi Pei. Cang Fu Zhi Zhang Tu Shu. Bei Jing(in Hai Wai Hui Gui Zhong Yi Shan Ben Gu Ji Cong Shu v.12). Ren Min Wei Sheng Publishing Co. 2003. p.618.
  16. Tang Zong Hai. Xue Zheng Lun(in Tang Rong Chuan Yi Xue Quan Shu) Bei 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1999. p.78.
  17. Tang Zong Hai. Zhong Xi Hui Tong Yi Jing Jing Yi(in Tang Rong Chuan Yi Xue Quan Shu) Bei 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1999. p.5, 20.
  18. Wang Hong Han. Yi Xue Yuan Shi. Shang Hai. Shang Hai Ke Xue Ji Shu Publishing Co. 1989. p.253.
  19. Wang Qing Ren. Yi Lin Gai Cuo. Seoul. Il Jung Sa. 1991. p.11, 53.
  20. Zhang Jie Bin. Lei Jing Tu Yi(in Zhang Jing Yue Yi Xue Quan Shu). Bei 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1999. p.269.
  21. Chen Meng Lei(Editor). (Tu Shu Ji Cheng)Yi Bu Quan Lu(v.5). Seoul. Dae Seong Mun Hwa Sa. 1992. p.337.
  22. Dong Yang Ui Hak Dae Sa Jeon Publishing Committee. Dong Yang Ui Hak Dae Sa Jeon(vol.8). Seoul. Kyung Hee University Publishing. 1999. p.489.
  23. Fang You Zhi. Shang Han Lun Taio Bian(Zhong Guo Yi Xue Da Cheng Xu Ji v.25). Shang Hai. Shang Hai Ke Xue Ji Shu Publishing Co. 2000. p.5.
  24. Huang Long Xiang(Editor). Zhong Guo Zhen Jiu Shi Tu Jian. Qing Tao. Qing Tao Publishing Co. 2003. p.25.
  25. Li Zhong Zi. Yi Zong Bi Du. Bei Jing. Ren Min Wei Sheng Publishing Co. 1995. p.39.
  26. Ma Shi. Huang Di Ne Jjing Ling Shu Zhu Zheng Fa Wei. Tai Bei. Tai Lian Guo Feng Publishing Co. unknown year. p.108.
  27. Wang Qi. San Cai Tu Hui(v.4). Seoul.

- Min Sog Won Publishing Co. 2004. p.1383.
28. Wu Qian. Yi Zong Jin Jian(xia). Seoul. Dae Seong Mun Hwa Sa. 1994. p.134.
29. Zhang Jie Bin. Lei Jing Tu Yi. Seoul. Dae Seong Mun Hwa Sa. 1990. p.81, 83.
30. Tang Zong Hai. Zhong Xi Hui Tong Yi Jing Jing Yi. Shang Hai. Qian Xiang Tang Shu Ju. 1905.
31. Bong Jae Han, Jun Ho Oh, Ji Yeun Seo, Tae Yuen Kim, Sae Young Hong, Seung Yick Yun, Wung Seok Cha, Nam Il Kim. The Formation and Text Compilation of 『HuaTaHyunMunNeJoDo』.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3(4). 2006.
32. Hyukyu Park, Woongjae Maeng. Research on the comment upon Samcho(三焦) Porak(包絡) Myungmoon(命門) by Jangkyung'ak.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11(1). 1998. p.353.
33. Jeong Woo-Yeal, Jeon Byung-Hoon, Lee Jin-Hong. Huh Jun's(許浚) Medical Thought Reflected Through the Figure of Body and Viscera(身形臟腑圖) in Donguibogam(東醫寶鑑).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10(2). 1996.
34. Jin Shiyong. Research on Atlas of Viscera. Chinese Journal of Medical History. 24(2). 1994.
35. KIM Seong Su. Development of Anatomy in the Edo Period: On the Publication of the Zoshi(藏志).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1(1). 2012. p.114, 125, 129.
36. Kim Taeu, Yoon Jonghwa.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figure of body and viscera(身形臟腑圖) and essence, energy, soul in Donguibogam(東醫寶鑑). The Journal Of Korean Qigong Medical Society. 10(1). 2007.
37. Kim, Dae-hyeong, Ahn Sang-Woo. 『Ojanyukbudo五臟六腑圖』 cited in Euibangyuchwi醫方類聚』: A Study in Terms of Medical History Science.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18(2). 2005.
38. Lee Myeongcheol, Park Kyoungnam, Maeng Woongjae. A Study on the Figures of Viscera(臟腑圖) in Sancaituhui(《三才圖會》 encyclopaedia illustrations about the all things in nature) by Wang Qi(王圻) of Ming-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2). 2007. p.156.
39. PAN Ping, GUO Yi, WANG Dong-qiang. A concise research into the history of "Mingtang Chart". Journal of Clinic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24(5). 2008.
40. Park Suck-Kee. A research of the visceral system of Samcho(三焦).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Dong Guk University. 2001.
41. Shin Seunghoon, Bae Seongcheol, Kim Kiwang. The pathways of semen described in ancient East Asian classics - focussed on the lateral Viscera Drawings. Journal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25(2). 2012. p.69, 70.
42. Sim Hyuna, Keum Kyungsoo, Jung Hyenyong, Choi Hyunbae, Eom Dongmyung. A Study on 『HuatuoxuanmenNeizhaotu』.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18(1). 2012.
43. Sung Min-gyu, Jeong Chang-hyun. Huh

- jun`s(許浚) Medical Thought Reflected Through the Figure of Body and Viscera(身形臟腑圖) in Donguibogam(東醫寶鑑).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1(3). 2008.
44. Yoon Chang-yeol. Function Disease Symptom And Organ Coordination of Tri-Energizer Based on the Materiality of Tri-Energizer.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26(2). 2013.
  45. Yoon Chang-yeol. Source And Identity Supporting The Theory of Materiality of Tri - Energizer in Nei Jing. Journal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25(4). 2012. p.62.
  46. Yoon Chang-yeol. Study on the theory of Materiality of Tri-Energizer.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24(6). 2011. p.141.
  47. Shin Seunghoon, Bae Seongcheol, Kim Kiwang. The pathways of semen described in ancient East Asian classics - focussed on the lateral Viscera Drawings. Journal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25(2). 2012. p.52.
  48. Mitani Shiraki. Kaita hatsumo(v.3). Japan. Osakashorin, Kyotoshorin. 1813. p.14. [cited at August 16, 2015.]. Available from : URL: [http://www.wul.waseda.ac.jp/kotenseki/html/ya09/ya09\\_00862/](http://www.wul.waseda.ac.jp/kotenseki/html/ya09/ya09_00862/)
  49. Chinmichitsune. Chinshihinoroku. [cited at August 16, 2015.]. Title 11(漢方の医書に見られる解剖図). Available from : URL: <http://hiraokaryuji.web.fc2.com/brain.html>
  50. Lu Yun Cheng. Shang Han Yi Yan. [cited at August 16, 2015.]. Available from : URL: [http://welcomeimages.org/indexplus/obf\\_images/ac/ab/ee29ee92327ae279f0e25ff5c388.jpg](http://welcomeimages.org/indexplus/obf_images/ac/ab/ee29ee92327ae279f0e25ff5c388.jpg)
  51. Okamotoippoco. Sekitasanro(editor). Shinkyu Batsusui Taisei(vol. 1). [cited at August 16, 2015.]. p.41. Available from : URL: <http://www.nl.go.kr/>
  52. Mitani Shiraki. Kaita hatsumo(v.3). Japan. Osakashorin, Kyotoshorin. 1813. p.12. [cited at August 16, 2015.]. Available from : URL: [http://www.wul.waseda.ac.jp/kotenseki/html/ya09/ya09\\_00862/](http://www.wul.waseda.ac.jp/kotenseki/html/ya09/ya09_00862/)
  53. Terashimaryoan. Wakansansaizue. [cited at August 16th, 2015.]. v.11(經絡). Available from : URL: <http://lisa.shimane-u.ac.jp/0/collection/da/da.asp?mode=vt&id=1317>

[부록]

본문에서 다루거나 언급한 三焦圖는 형상에 따라 6종의 계통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三焦有形說의 세부 분류에 따라 脂膜說 지지, 體腔說 지지, 기타 계열 등의 3가지 계통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三焦有形說의 세부 분류 기준으로 그림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p>中西匯通醫經精義 1892</p>		<p>陳氏秘囊錄 1811</p>
	<p>解體發蒙 1816</p>		<p>針灸拔萃大成 1698</p>
	<p>傷寒論條辨 1592</p>		<p>醫學原始 1688</p>
			<p>和漢三才圖會 1712</p>
	<p>醫部全錄 1723</p>		<p>醫宗金鑑 1742</p>
	<p>三才圖會 1607</p>		<p>藏府掌圖書 1640년후?</p>
	<p>靈樞注證發微 1580</p>		<p>醫宗必讀 1637</p>
	<p>針灸原樞 1560년후?</p>		<p>類經圖翼 1624</p>